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승리하는 삶

사도 바울은 당시 세상적인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때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심한 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회심을 의심했고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갈등과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가난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았으며,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영원한 천국의 안식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할 수 있으나 주님 안에 있다면 가장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갈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는 부활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2. 흔들리지 않는 삶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서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기준과 비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견실하게 서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의 '흔들리지 말고'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문은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은 새로운 비교의 대상을 만날 때마다 흔들리게 됩니다. 상황에 의지하는 사람은 상황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에 뿌린 내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열매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인위적인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샘물같이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박은 믿음은 시련을 만나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올해 어떤 시련을 만나도 말씀에 뿌리박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 헛되지 않은 삶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 물질, 명예, 인기,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등은 모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앞이라"(58절 하반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 자체가 가장 귀한 것이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 가정 예배문

명절 가정 예배

민족의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 가정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가정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 추도예식의 의미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추도예식을 갖습니다. 추도식은 ¹고인을 추모하고 ²생전의 은덕과 뜻을 기리며 ³가족들의 신앙을 독려하여 화목을 다지는 예식을 의미합니다. 고인을 기억하는 의미로 사진을 놓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좋지만, 상을 차리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은 삼갑니다.



명절 가정 예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배순서

1 예식사 | 인도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우리 가족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 묵상 기도 시편 100편 1~5절 | 인도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3 찬 송 새 563장(통 411장) 예수 사랑하심을 | 다같이

- 1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 2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 3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 4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가게 하소서
- 후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4 기도 | 인도자

온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당신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어 영원한 사랑으로 동행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자리와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인 이 가정이 더욱 굳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유산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이 주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지나갈 세월이 주님의 은혜일 것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성경 봉독 고린도전서 15장 57~58절 | 다같이

-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6 설 교 | 설교자 (아래 설 교 참조)

7 기도 | 설교자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주신 은혜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견실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구원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가정과 교회, 주어진 삶 속에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전하는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참된 행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 찬 송 새 452장(통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 다같이

- 1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 2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 3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 후렴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지소서

9 주님의 기도 |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순서를 마칩니다)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설 교

견실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가정 고린도전서 15장 57~58절

할렐루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가족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우리 가족 모두가 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견실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견실하다’라는 말씀에는 ‘믿음직스럽게 든든히 서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은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며, 세상의 가치에 침식당하는 삶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견실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 낙심과 절망 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다면 견실한 삶,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